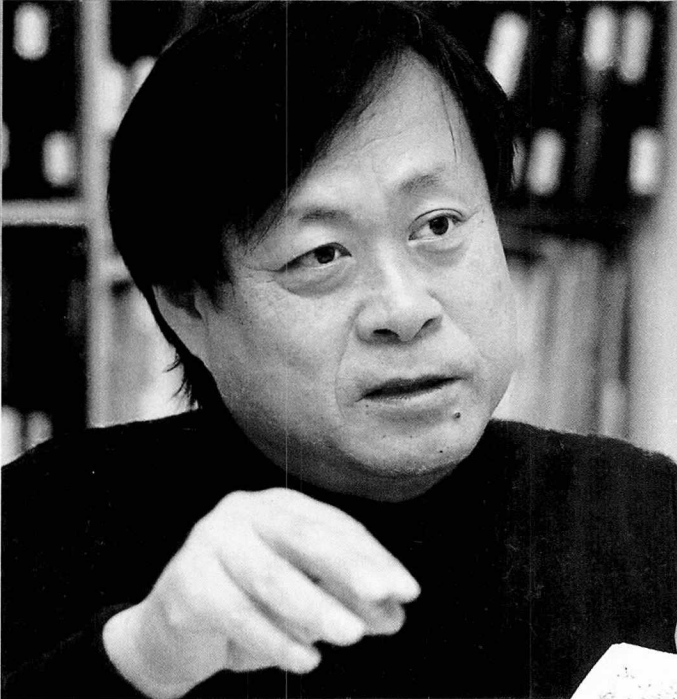


# 사라져가는 것들에게 바치는 사진의 만가

《한국의 세시풍속》 《도산서원》 펴낸 사진가 황현만씨



《한국의 세시풍속》은 농사력에 따르는 한국의 세시풍속을 자세하게 사진으로 기록한 책이다. 이 책의 사진은 황현만씨가 30여년 동안 전국을 누비며 기록한 그의 사진인생의 결정체다. 《도산서원》은 3년 동안 25번이나 안동에 내려가 유교와 퇴계가 이룬 도산서원의 표정을 사진에 담았다. 특히 도산서원의 향례과정을 찍은 사진은 일반인이 접하기 어려운 귀한 자료다.

피땀노이를 담기 위해 전북 부안군 위도에 가고, 소싸움을 찍기 위해 경북 청도에도 가고, 천체를 기록하기 위해 태백산을 오르기도 한다. 그가 발품을 팔아 찍어낸 사진들은 이 책에 월별 세시풍속으로 정리돼 있다. 월별 세시풍속과 관련한 지역만의 특색 있는 풍속은 전과정을 사진으로 자세하게 기록해 함께 소개하고 있다.

### 세시풍속 정월에 몰려 있어 어려움 많아

어떤 사람들은 책 한권에 들어갈 사진을 찍는 데 무슨 30년이나 걸리느냐고 속 모르는 소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시풍속이란 말 그대로 일년 가운데 특정한 날에만 하는 의례나 의식이다. 옛부터 농경사회를 이뤘은 우리 민족의 경우 1년 단위의 농사력에 따라 의례 행사나 의식, 놀이들이 형성돼왔는데, 우리의 세시행사와 전통놀이들은 정월, 특히 설날부터 대보름 사이 보름 동안에 집중돼 있다. 두 명절 사이가 길지 않고 한창 농한기를 즐길 시기기 때문이다. 설빔, 차례, 성묘, 북소리, 세화, 횡수막이, 쥐불놀이, 토정비결 보기, 직성 보기, 과수나무 돌 끼우기, 널뛰기, 옷놀이, 연날리기, 입춘제 붙이기, 달붙이, 안택고사, 복토 훑치기, 용알뜨기, 줄다리기, 기세배, 벗가릿대 세우기 등 30여 종류의 세시풍속이 음력 정월에 이뤄진다. 이 책에 소개된 세시풍속 가운데 정월의 세시풍속이 30% 정도를 차지한다. 그러니 이 시기의 세시행사나 놀이만 기록하자고 해도, 서로 날이 겹쳐 한 해를 넘기면 또 그 다음 해를 기약할 수밖에 없다.

“이 책의 사진 작업은 내 삶과 함께 해온 셈이죠. 사실 이런 사진을 찍는 것은 ‘기름기’가 없어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돈도 안된다는 말이죠. 때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힘에 부치기도 하지만, 누군가 정리하지 않으면 영원히 사라지고 말 것들이 우리네 세시풍속이죠.”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일이다 보니, 공동체만의 삶에서 우리나 온 자연스러운 모습이 변질되는 경우도 많다. 행사나 놀이가 알려져 매스컴을 타거나 하면 옷차림이나 행사자체가 정형화되고 민속경연대회 풍으로 변해버리기도 한다. 또 유명한 행사에는 언론사 카메라가 많이

전라북도 고창군 고수면 우평리 독실 마을에서는 해마다 정월 대보름 날 저녁 당산제에 앞서 줄다리기를 한다. 집집마다 각기 짚 한단씩 가져와 일흔두 가닥의 가는 줄을 만들고 이것을 둘로 나눠 암줄과 수줄을 만든다. 그러면 양쪽이 각기 열두 가닥의 줄을 네 가닥씩 묶어 굵은 세 가닥의 줄로 만들고 마지막에 그것을 하나로 묶어 몸줄을 만든다. 암줄과 수줄이 완성되면 두 줄을 비너목으로 연결한다. 남녀 편을 갈라 남자는 수줄, 여자는 암줄을 잡는다. 줄다리가 시작되면 여자들은 남자들이 힘을 못쓰게 회초리로 때리는 등 고의로 훼방을 놓는데, 암줄이 승리해야 풍년이 든다고 믿기 때문이다. 한참을 밀고 당기다가 결국 여자편이 승리하면 마을 사람 남녀 모두 환호한다. 줄다리가 끝나면 줄을 당산나무에 감고 그 앞에서 주민들은 한 해의 평안을 기원하는 당산제를 지낸다.

사진가 황현만씨(55)가 사진을 찍고 지역문화연구가 정승모씨(50)가 설명을 단 《한국의 세시풍속》은 이 과정을 모두 사진으로 기록하고 있다. 황씨의 사진은 줄다리기할 때 수줄 쪽에서 훼방을 놓는 마을 여자, 여자쪽이 이겨 마을 사람들이 내치르는 환호, 줄다리가 끝나고 줄을 매고 들판으로 나가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 등을 생생하게 되살려낸다. 황씨가 3년 동안 도산서원의 사계와 향례 등을 사진으로 담아낸 《도산서원》도 함께 나왔다.

《한국의 세시풍속》에 실린 사진은 황씨가 30여년 동안 세시풍속의 현장을 찾아 전국을 누비며 기록으로 남긴 결과물이다. 그는 용왕굿과

물리는 탓에 다른 카메라를 피해 사진을 찍는 것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럴 경우 황씨는 아예 직접 나서서 교통정리를 하기도 한다. 그는 보통 사진을 찍으러 가기 전에 지방문화원 등에 문의해 사전 자료 조사를 하고 행사나 놀이의 날짜가 정해지면 그 지역으로 내려가는데, 그때 마을 사람들에게 촬영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면 사진을 찍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도산서원》의 향례만 해도 엄격하고 까다로워 사진 찍기가 쉽지 않았다.

《도산서원》은 그가 유교문화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해봐야겠다고 결심하고 이룬 첫 결실이다. 그는 무려 25번이나 안동에 내려가 유교와 퇴계가 이뤄낸 도산서원의 표정을 사진에 담았다. 특히 향례는 다른 서원에서는 많이 변화돼 도산서원에만 전통풍습 그대로 전승되고 있다. 일반인이 좀처럼 대하기 힘든 귀한 자료다.

### 전통 소재 다루는 전문가 많지 않아 안타까워

황씨가 처음 사진을 시작한 것은 1968년이다.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전통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인 건 아니었다. 처음에 그는, 그의 표현에 따르면 'צלל' 조의 아름다운 사진을 주로 찍었다. 그러다가 선배 사진가 육명심과 주명덕을 만났다. 육명심에게는 현대적인 사진 기법을 배웠고, 주명덕에게는 전통적인 것에 대한 영향을 받았다. 한동안 현대적인 사진에 몰두하던 그가 전통적인 소재로 완전히 기수를 돌린 것은 자신의 사진전시회에서 받은 충격 때문이었다. 그의 사진을 본 외국인들은 한결 같이 현대적인 사진을 두고 "이런 사진은 우리에게 이미 많다"고 입을 모으는 것이었다. 도리어 그들은 전통적인 소재를 다룬 몇 안 되는 사진에 주목

하며 이런 사진이야말로 가장 한국적인 사진이라고 말했다.

그 뒤 그는 잡지사 등에서 근무하며 패션 등 상업사진을 찍으면서 개인적으로 전통적인 소재를 찾아다니기에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유행에



농사력에 따라 형성돼온 우리나라의 세시행사와 전통놀이들은 설날부터 정월 대보름 사이 보름 동안에 집중돼 있다. 사진은 전남 화순군 한천면 한천리의 지신밟기 모습.

다. 출판사에 기획안을 내서 통과되면 작업비를 받아 사진작업을 하는 것이 상례지만, 황씨는 자신이 기획해 자신의 사진으로 시안을 만들어 출판사에 들고 찾아간다. 그러니 돈이 모일 리 없다. 이 무모한 작업의 끝엔 항상 전문적으로 전통적인 것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데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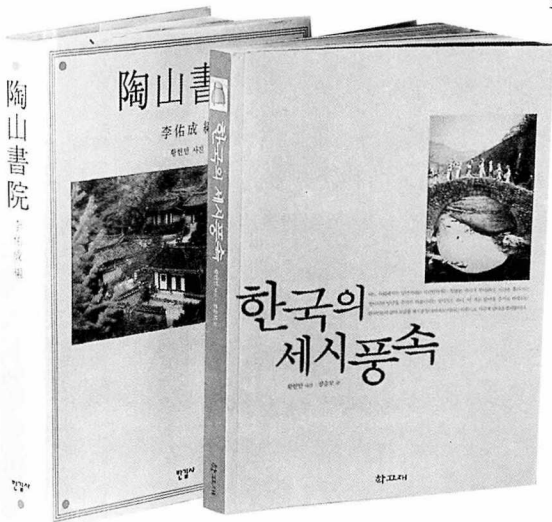
"내 사진은 기록적이고 설명적인 사진입니다. 예술적인 것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요. 잡지사 일을 오래 하다 보니 독자와 좀더 가깝게 만날 수 있는 사진을 찍게 된 것이죠. 그러나 후배들이 내 사진을 토대로 우리 전통 문화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표현해낸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도 없겠죠."

### 사람의 한 살이 · 석불 등 사진으로 정리할 계획

장승, 솟대, 미륵, 선사시대, 선암사, 수호신, 석불, 서낭당 등 그의 작업실에 꽂혀 있는 파일 제목만 봐도 그동안 그가 소명을 갖고 해온 작업이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그의 관심은 그칠 줄 모른다. 요즘은 사람의 한살이를 그동안 찍어온 사진들로 정리하고 있다. 그 사진들 속에서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고 결혼하고 환갑, 진갑을 거쳐 죽음에 이르러 장례를 치르고 이장을 하는 등 한 사람의 평생의례를 유교, 불교, 무속을 망라해 담아낼 예정이다.

또 그는 요즘 석불 사진도 정리하고 있다. 석불 사진은 1년 정도 더 작업하면 완성될 것이라고 한다. 그는 석불 사진집 시안을 보여주며 "재미있지? 이게 우리 얼굴이야"를 연발한다. 그의 말마따나 "미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을 그가 지금 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김장근 기자



황현만 사진 | 이우성 엮음  
한길사/A4변형/350면/50,000원

황현만 사진 | 정승모 글  
학고재/B5변형/302면/25,000원

민감한 상업사진은 조금 지나면 금방 질리지만 전통적인 소재를 다룬 사진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결코 질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것도 이 즈음이다. 《장승》《초가》《조선땅 마을지킴이》(이상 열화당) 등을 펴낸 것도 그가 열심히 전국을 누빈 결과였다.

그는 좋은 책을 위해서 스스로 시안을 만드는 작업도 마다하지 않는